

2011. 10. 17 제273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1. 10. 17 제273호

산업·경제

1. 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유지를 상업지구로 개발 (뉴욕)
2. 혁신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디자인 개발 보조금 지원 (베를린)
(토막기사)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해외인재 교류대회' 개최 (북경)

건강·복지

- (토막기사)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발표 (뉴욕)
(토막기사) '양육가정' 체험 발표회 개최 (도쿄)

행정·재정

- (토막기사) 해외 교민조직과의 협력 강화 (북경)

도시환경

- (토막기사) 8개 도심공원 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 (런던)
(토막기사) 생활하수 열을 건물 난방에 재활용 (파리)
(토막기사) 전기자동차 택시의 실용성 실증조사 시행 (도쿄)

도시교통

3. 도시환경과 교통문화에 맞게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 (스톡홀름)
(토막기사) 민간 후원으로 공용자전거 대여 프로그램 '자전거 함께 타기'
시행 (뉴욕)

도시계획·주택

4. 청년 주거 지원프로그램 시행 (파리)
-

산 업 · 경 제

1. 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유지를 상업지구로 개발 (뉴욕)

- 뉴욕시는 2012년 브루클린區 다운타운 요라레몬 거리에 위치한 시유지를 455m² 규모의 상업지구로 개발할 예정임. 개발사업자는 United American Land이며, 지하 및 지상 1·2층을 보행친화적인 쇼핑공간으로 개발해 뉴욕의 3대 중심업무지구로 자리 잡게 할 계획임.
- 대상지에는 시 기획예산국이 위치하고 있으나 조만간 다른 시유지로 옮겨갈 예정임. 이번 사업은 그동안 시가 도심지역 재생을 피하고 시유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임.
 - 사업대상지에는 1925년에 설계된 13층짜리 건물이 자리 잡고 있고 14개 지하철 노선과 16개 버스노선이 연결되어 있어 교통 접근도가 높으며 업무 및 주거공간, 오픈스페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는 브루클린 지역 활성화를 위해 문화시설과 공원 등을 재정비하거나 새롭게 건설하고 있음. 그 결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시는 나아가 5개 區 전역에 걸쳐 침체된 거리나 상업지구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밝힘.
 - 브루클린區는 도심 재생을 위해 2004년 이후 수백억 원 이상을 투자해왔는데, 주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매, 업무, 오락시설 등에 집중 투자함.
- 시는 2014년까지 111km²에 달하는 시유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해 매년 3600만 달러(약 41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임. 시는 그동안 시

업무공간을 3만㎡ 축소해 매년 1280만 달러(약 14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음.

(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www.nyc.gov%2Fhtml%2Fom%2Fhtml%2F2011b%2Fpr296-11.html&cc=unused1978&rc=1194&ndi=1)

2. 혁신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디자인 개발 보조금 지원 (베를린)

- 베를린市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중심은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으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전보너스(Transfer Bonus) 사업임. 市는 여기에 더해 디자인 이전보너스(Design Transfer Bonus) 사업을 추가 시행하기로 2011년 9월 결정함.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지만 제품 디자인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경우가 많음. 市는 중소기업의 혁신과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베를린 디자인센터, 창조네트워크, 독일 디자인연구소와 협력해 디자인 전략을 수립했으며, 그 첫 번째 사업이 디자인 이전보너스 사업임.
 - 지원대상은 베를린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특히 기계, 사무용기기 및 데이터장비, 가전제품을 만드는 업체나 데이터가공, 정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체 등 기술혁신이 필수적인 회사들임. 제품 디자인은 베를린에 소재한 디자인 회사나 디자인 학교, 대학 디자인

학과를 통해 이전 받거나 이들 기관에 개발을 의뢰함.

- 중소기업과 디자인 회사 및 학교가 새로운 디자인 개발계획서와 예산안을 제출하면 서류 심사와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대상을 확정함. 지급금액은 예산안의 70% 수준이고, 1만 5000유로(약 2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됨.

(www.berlin.de/sen/wtf/presse/archiv/20110930.1135.360445.html)

(www.designtransferbonus.de/forderprogramm.html)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해외인재 교류대회’ 개최 (북경)

- 북경市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최근 ‘해외인재 교류대회’를 개최함. 미국·영국·프랑스·호주·일본 등 해외에 있는 우수인재 600여 명이 참가해 해외인재 교류·협력 방안과 북경을 세계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市는 도시 발전이 인력자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이번 행사를 개최함.
- 市는 전 세계에 있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해외인재 유치 프로젝트와 중관춘(中關村) 인재 특구 건설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해외 우수인재가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함.

(北京日报, 2011. 9. 30)

(http://news.cqnews.net/html/2011-09/28/content_8596852.htm)

건강 · 복지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발표 (뉴욕)

- 뉴욕시는 매년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 안전사고 중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배포함. 체크리스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마루 및 카펫 바닥: ① 방에 들어설 때 앞을 가로막는 가구가 있는지, ② 바닥에 러그(Rug, 마루나 방바닥에 까는 거칠게 짠 직물제품)를 펴놓았는지, ③ 바닥에 일상생활용품이나 기타 장애물이 있는지, ④ 전선 등 불필요한 전기용품이 있는지를 확인함.
 - 복도 및 계단: ① 계단에 장애물이 있는지, ② 손상된 곳은 없는지, ③ 조명시설이 충분한지, ④ 계단 아래층과 위층에 전등 스위치가 모두 있는지, ⑤ 카펫이 찢어지거나 들뜬 곳은 없는지, ⑥ 핸드레일(Handrail, 난간)이 손상되었는지를 확인함.
 - 주방 및 화장실: ① 집기를 높이 보관하지는 않았는지, ② 선반은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③ 샤워실과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④ 욕조나 화장실에서 나올 때 잡을 수 있는 지지대나 핸드레일이 필요한지를 확인함.
 - 침실: ① 불이나 조명을 쉽게 켤 수 있는지, ② 침실에서 화장실에 갈 때 조명이 충분히 밝은지를 확인함.
- 시는 노년층과 독거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복지 및 주거환경, 건강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사고, 식습관,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마련 중임.

(www.nyc.gov/cgi-bin/exit.pl?url=http://www.cdc.gov/HomeandRecreationalSafety/pubs/English/booklet_Eng_desktop-a.pdf)

‘양육가정’ 체험 발표회 개최 (도쿄)

- 도쿄都에는 부모의 질병이나 학대 등으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가 4000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아이를 자신의 가정에서 키우는 ‘양부모’(里親)가 있습니다. 도쿄都는 이러한 양부모 중에서 입양 목적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을 ‘양육가정’이라 명명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2011년 10월과 11월을 ‘양부모의 달’로 정해 양육가정 체험 발표회를 도내 전역에서 개최함.
- 이번 체험 발표회에서는 양부모로부터 육아와 관련된 에피소드, 육아의 기쁨과 어려움 등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도내 49개 회의장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9/2019q500.htm)

행정 · 재정

해외 교민조직과의 협력 강화 (북경)

- 북경市 교민업무사무실은 2011년 9월 27일 ‘2011년 해외교민 북경 좌담회’를 개최하고 市 경제·사회 발전상과 제12차 5개년 계획을 소개한 뒤 해외 교민조직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구체적으로 해외 교민조직과의 업무협력·문화교육·미디어홍보·공익사업 등을 주제로 의견을 적극 개진함. 현재 각 교민조직은 市 교민업무사무실이 추진하는 중점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市 교민업무사무실은 2008년 교민서비스, 국가 교민업무서비스, 수도 경제·사회 발전서비스의 3개 분야별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교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교민서비스는 교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수도 경제·사회 발전서비스는 교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지원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말함. 교민조직들도 市와

긴밀하게 융합되어 있음. 한 예로 2008년 북경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교민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市 교민업무사무실은 앞으로 ① 중심업무지구(중심업무지구)에 세계 화상(華商) 중심지역 조성, ② 해외 화상 북경협의회 구성, ③ 해외 화상·화인(華人) 우수인재 유치, ④ 해외 청소년 중국어 가곡대회 개최, ⑤ 교민업무 홍보 강화, ⑥ 해외 중국어교육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北京市 人民政府侨务办公室网站, 2011. 9. 29)

도 시 환 경

8개 도심공원 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 (런던)

- 런던市는 대규모의 녹지를 제공하고 연간 3700만 명이 방문하는 8개 도심공원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임. 이 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지, 공원에서 일어나는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지, 상업 이벤트 유치가 주는 혜택과 환경영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하게 됨.
- 도심에 위치한 공원은 Bushy Park, Green Park, Hyde Park, Kensington Park, Regent Park, Richmond Park, St. James Park 등임.
- 市의회 환경분과 위원회는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도심공원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공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도심공원이 많은 시민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장기계획 수립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london_assembly/assembly-looks-future-plans-london%E2%80%99s-royal-parks)

생활하수 열을 건물 난방에 재활용 (파리)

- 세계적인 하수시스템으로 유명한 파리의 Wattignies라는 학교에서는 하수 열을 건물 난방에너지로 재활용하고 있음. 가정이나 기업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20℃ 정도지만 이를 한곳으로 모으면 60℃까지 높일 수 있음. 이렇게 모아진 열은 지하저장소로 보내져 건물 난방을 위해 사용됨.
 - 하수 열 이용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초기 설치비용으로 40만 유로(약 6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상·하수 공급업체로부터 지원받음. 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여 학교 시설물 난방에너지의 70% 이상을 제공할 계획임. 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206톤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시는 하수 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해서는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등을 가르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힘.
- 하수 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일본과 노르웨이에서는 하수 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선수촌에 하수 열을 이용한 에너지가 도입되기도 함.

(<http://thisbigcity.net/sustainable-paris-uses-warmth-sewers-heat-buildings/>)

전기자동차 택시의 실용성 실증조사 시행 (도쿄)

- 도쿄都 환경국은 차세대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쿄 승용여객자동차협회와 협정을 체결하고, 현재의 도로 및 교통상황에서 전기자동차의 유효성과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택시의 실용성 실증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都는 전기자동차의 실제주행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기자동차 운행 시 나타나는 문제점과 특성을 분석해 실효성

높은 운행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많은 택시사업자가 전기자동차를 채택하고 도민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촉진할 예정임.

- 2011년 10월 3일부터 2012년 2월까지 약 150일간 도심에 전기자동차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택시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실증조사를 실시함. 승강장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며, 도쿄 승용여객자동차협회에서 총 18대의 전기자동차 택시를 운행할 예정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9/2019q300.htm)

도 시 교 통

3. 도시환경과 교통문화에 맞게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 (스톡홀름)

- 스웨덴 스톡홀름시의 혼잡통행료 정책은 런던시 사례를 모델로 도입되었지만 시행방식과 혼잡통행료 징수방식에 차이가 있음. 런던시의 혼잡통행료 정책은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반면, 스톡홀름시의 경우에는 차량의 진입흐름을 피크시간대를 피해 적절히 배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됨.

- 런던시의 혼잡통행료 정책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스톡홀름시는 2006년 1월 3일 혼잡통행료 제도를 도입함. 두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런던에서는 월~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파운드(약 1만 8000원)를 부과함. 이에 반해 스톡홀름은 오전 6시 30분부터

7시까지 1유로(약 1600원), 7시부터 7시 30분까지 1.5유로(약 2400원),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유로(약 3200원)를 부과함.

- 런던에서는 오전에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만 스톡홀름에서는 오후 혼잡시간에도 오전과 동일하게 시간에 따라 다른 통행료를 징수함. 두 도시 모두 녹색교통이라 할 수 있는 친환경 택시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함.
 - 스톡홀름시는 월간 통행기록과 통행료 징수내역을 운전자에게 제공해 운전자 스스로 적절한 통행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유관 전문가들은, 스톡홀름시가 도시환경과 교통문화가 런던시와 다른 점을 고려해 혼잡통행료 제도를 잘 변화시켜 시행하고 있는 성공 사례라고 평가함. 혼잡통행료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4.5% 증가하였고, 도심으로의 진입차량이 18% 감소하였으며, 도시 진입을 위한 지체시간이 50% 감소하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4~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스톡홀름의 혼잡통행료】



【스톡홀름의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http://thisbigcity.net/the-success-of-stockholms-congestion-pricing-solution/>)

민간 후원으로 공용자전거 대여 프로그램 ‘자전거 함께 타기’ 시행 (뉴욕)

- 뉴욕시는 차세대 도시형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시민에게 임대해 이용하도록 하는 ‘자전거 함께 타기’ 프로그램을 2012년 여름에 시행할 계획임. 자전거 스테이션은 이용자가 공용자전거를 쉽게 빌려 탈 수 있도록 건설됨. 자택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스테이션에서 자전거를 빌려 목적지 근처의 스테이션에 반납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예정임.
 - 시는 600개소의 스테이션과 1만 개의 자전거를 맨해튼과 브루클린에 우선 설치하거나 배치하고 점차 퀸스, 스테튼 아일랜드, 브롱크스區로 범위를 확장할 계획임. 이번 사업은 공공자금 투입 없이 민간 후원 및 투자 형식으로 시작할 계획임.
- 시내 통행인구의 54% 이상이 5km 내외의 단거리 통행임을 고려할 때 자전거는 걷기에는 다소 멀고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는 가까운 거리 통행용으로 적합한 수단임. 이 프로그램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음. 이용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음.
 - ① 회원 가입: 자전거를 대여하려면 NYC Bike Share 회원으로 가입해야 함. ② 대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도시형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열쇠를 받게 되며 열쇠를 이용해 언제든지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음. ③ 이용: 빌린 자전거는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음. ④ 반납: 자전거 반납은 600개소의 스테이션 어디에서든 가능함.

(www.nycitybikeshare.com)

(www.nycbikesharesponsorship.com)

4. 청년 주거 지원프로그램 시행 (파리)

- 파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청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12만 500호를 공급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정지원을 통해 1만 125호를 공급했다고 밝힘. 파리의 청년(학생 및 근로자) 인구는 약 50만 명으로 파리 전체인구의 약 1/4을 차지함.
- 현재까지 제공된 1만 125호 중 청년 근로자를 위한 숙소는 약 4000호이며, 시는 2014년까지 4700호를 더 공급할 계획임. 또한 시는 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주택을 2001년 약 1900호에서 2014년 7800호까지 늘릴 계획임. 기존 주택의 리노베이션과 신규 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2011년 9월 현재 6200호를 공급함.
- 시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청년 주거 지원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대 간 공동주택 임대 제도: 청년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독거노인과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독거노인의 단절감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장치임. 독거노인의 거주지에 청년이 기거하면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저녁 때 노인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조건임. 노인의 인터넷 이용을 도와주는 등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도 있음. 시는 이를 위해 2010년 4월 세대 간 공동주택 임대 현장을 채택하고 현장에 조인한 기관에 재정을 지원함. 이들 기관은 독거노인과 청년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함. 현재 파리는 청년·노인 공동거주자가 300쌍 이상 있음.

- 폴 부르제(Paul Bourget) 건물 리노베이션 프로그램: 市 소유 건물 관리회사가 건물을 리노베이션하면 현장에 조인한 기관이 가구를 비치한 뒤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함.
 - 세대 간 사회주택: 오래된 市 청사의 일부를 리노베이션해 거동이 가능한 독거노인과 청년 근로자에게 주거공간으로 제공함. 건물 1층에 세대 간 만남의 장을 조성함.
-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공동임대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파리 13區의 푸앵트 디브리 숙소: 청년 근로자에게 아파트를 공동 임대함. 이 아파트는 가구가 갖추어진 2~5개의 개별 방과 공동 욕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음.
 - 파리 14區: 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개조해 대학 및 학교활동 지역 센터 파리지부가 선정한 장학생에게 공동 임대함. 아파트에는 가구가 비치된 개별 방(11~25m²)이 4~5개 있음.
 - 파리 20區: 도시취약지구 부근의 넓은 가족형 사회주택을 공동임대 주택으로 개조함. 최저 임금 이상을 받아 공적 보조를 받을 수는 없지만 스스로 집을 구하기에는 수입이 충분치 않은 젊은 근로자가 입주대상임.

(www.paris.fr/pratique/etudiants/se-loger/colocation-senior-etudiant-le-mode-d-emploi/rub_1940_stand_81175_port_4374)

(www.paris.fr/accueil/logement/les-solutions-logement-pour-les-jeunes-a-paris/rub_9649_actu_105395_port_23745)

(www.jeunes.paris.fr/habiter-chez-un-senior)

(www.paris.fr/accueil/Portal.lut?page_id=9649&document_type_id=7&document_id=99038&portlet_id=24061)

(www.jeunes.paris.fr/des-nouvelles-pistes-pour-mieux-vous-loger)